

<환 경>

그린라운드에 이은 또다른 무역장벽!!

93년 3월21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세계 주요 경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공급체계에 일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류는 이산화탄소로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소비구조에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일차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향후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최근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인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특히 일차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구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0년부터 1990년 배출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일차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에너지 소비 전략면에서 오는 2000년부터 일차에너지 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각국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1989)

(단위 : TOE/1000달러, %)				
미 국	프랑스	영 국	일 본	한 국
0.43	0.37	0.40	0.26	0.59

【표3】 에너지 소비의 탄성치

(단위 : %)

구 분	81~85	86~90	1991	1992	1993
에너지증가율	5.1	10.6	11.2	12.5	8.9
경제성장률	8.4	10.9	8.4	4.7	5.1
에너지/GNP탄성치	0.61	0.97	1.33	2.66	1.74

지구환경문제 「발등의 불」

따라서 자칫하면 이같은 선진국중심의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Green Round와 같이 선진국들의 신흥경제개발국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경제외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지난 50년간 산업화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11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을 제고해 왔던 선진국이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현재 34%에 지나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개도국을 규제하는 것은 수치외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은 최근 10년간에 걸쳐 그들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해 일차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관련 전문분석기관인 DRI의 전망에 따르면, 아·태 지역이 오는 2015년에 현재의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현재 이들 지역에서 산업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일차에너지 소비지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기후변화협약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유럽 선진국들은 유럽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이미 저렴한 생산비와 질적인 개선으로 유럽에 비해 개도국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일반 산업부문에서 탈피 개도국과 경쟁

력이 있는 환경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 그들의 경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자국내 수입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에너지를 통한 무역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국가와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페인트시장에서 사용허용치를 설정한 용제를 일정선이상 사용한 수요제품에 대해 지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무역규제와 같은 선상에서 에너지 효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은 Green Round에 버금가는 무역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미래 최고의 성장산업, 수출산업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DR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7년 유럽의 환경관련제품 및 서비스시장은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390억달러였으며, 2005년의 시장규모는 1250억달러로 국민총생산의 2.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강화 정책이 범유럽적으로 채택될 경우 환경시장규모가 국민총생산의 3.7%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생산·수출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4년 국내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원으로 소비규제를 받는 석유부문이 7억6289TOE로 전체 에너지원의 84.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표2】 국내 에너지 소비 전망

(단위 : 1000TOE)

구 분	1992		1993		1994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1차에너지	116,009.7	12.0	125,147.5	7.9	134,260.8	7.3
석 유	71,739.8	20.3	78,674.0	9.7	85,186.6	8.3
전 환	33,516.9	10.5	36,966.6	10.3	40,116.7	8.5
최종에너지	94,623.0	12.9	102,239.7	8.1	110,653.7	8.2
에너지원별						
석 유	62,939.3	19.5	69,681.0	10.7	76,289.0	9.5
전 력	9,911.0	10.4	10,841.2	9.4	11,930.3	10.1
도시가스	2,219.2	44.1	3,217.6	45.0	4,579.3	42.3
부 문 별						
산 업	50,825.1	18.4	53,426.5	5.1	56,221.3	5.2
석 유	30,514.4	25.8	32,415.5	6.2	34,317.6	5.9
유연탄	13,130.7	4.4	14,036.9	6.9	14,290.3	1.8
전 력	6,063.4	8.2	6,508.5	7.3	7,085.4	8.9
수 송	18,530.8	14.7	21,167.5	14.2	24,348.3	15.0
경 유	9,527.1	9.3	10,411.9	9.3	11,495.0	10.4
휘발유	4,409.8	24.2	5,381.1	22.0	6,230.4	15.8
가정상업	23,008.4	5.0	25,293.2	9.9	27,439.8	8.5
석 유	12,404.9	22.1	14,503.7	16.9	15,826.6	9.1
도시가스	1,760.0	51.8	2,775.5	57.7	4,072.2	46.7
전 력	3,174.3	16.2	3,574.5	12.6	3,997.0	11.8
무연탄	5,288.4	▽26.2	3,925.6	▽25.8	3,075.0	▽21.7
연 료 용	71,147.5	9.3	77,575.3	9.0	85,188.7	9.8
원 료 용	23,475.5	25.4	24,664.4	5.1	25,465.0	3.3
GNP탄성치	2.5		1.5		1.2	
석유의존도	61.8		62.9		63.4	
해외의존도	93.6		94.7		95.9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량의 84.5% 차지

국내 석유와 유연탄의 소비량은 5.2%, 1.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전력의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8.9%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유에너지 의존도는 OECD국가 평균 65.0%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현재 기후변화방지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수출제품의 효율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어 관계 당국이나 관련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이번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선진국들의 집중적인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은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있고 세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 지난 몇년간 석유화학시장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자국산업을 보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한국 석유화학시장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낙후된 환경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4/9/1>